

## 2023년 원유·천연가스 생산량 정부 목표치 하회

2024. 1. 31

한-인도네시아 인프라 협력센터

지난해 주재국의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이 모두 정부의 목표치를 하회했습니다.

CNBC 인도네시아 등의 보도에 따르면 주재국 석유·가스 규제당국인 SKK미가스(Migas)는 지난해 일평균 원유 생산량이 605,500배럴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목표치인 66만 배럴 대비 92% 수준이며, 2022년도 생산량(612,300배럴)보다도 적은 수치입니다.

천연가스 생산량도 일평균 53억 7,800만  $ft^3$  로 2022년도 생산량(53억 4,700만  $ft^3$  )보다는 많았지만, 정부 목표치(61억 5,000만  $ft^3$  )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SKK미가스 측은 기존에 채굴하던 유전은 고갈되고 있는데 지난해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예상보다 시추 작업이 적어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신규 프로젝트 진행이 더뎠던 작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목표치(원유 635,000 배럴, 천연가스 57억 8,500만  $ft^3$  )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평균 예상 생산량은 원유 596,000 배럴, 천연가스 55억 4,400만  $ft^3$  입니다.

### 연도별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 및 정부 목표치

[단위 : 원유 : 천 배럴, 천연가스 : 백만  $ft^3$  ]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생산량(E)	정부 목표치	생산량	정부 목표치	생산량
원유	596	635	605.5	660	612.3
천연가스	5,544	5,785	5,378	6,150	5,347

자료 : SKK미가스

SKK미가스는 올해 유전 폐쇄를 최소화하고 15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이 경우 당초 예상치보다 원유는 42,000 배럴, 천연가스는 3억 2,400만ft<sup>3</sup> 를 더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주재국의 일평균 원유 생산량은 100만 배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장량 고갈과 각종 규제에 따른 투자 부진 등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모두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주재국 정부는 2030년까지 원유 생산량은 1일 100만 배럴, 천연가스 생산량은 1일 120억ft<sup>3</sup> 를 달성하겠다고 하며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 유치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주재국 정부는 새로운 석유·가스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업자들이 개발 광구에서 나오는 생산물의 절반 이상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주재국 에너지광물자원부의 아리핀 타스리프 장관은 지난 12월 발리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업스트림 석유·가스 국제 컨벤션’ (ICIUOG)에 참석해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개발사업권 계약자가 생산물의 50% 이상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더 매력적인 조건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동안 주재국 정부는 민간업체에 광구 개발권을 팔고 이에 대한 생산물을 분배할 때 정부가 50% 이상을 가져가도록 해왔지만, 투자 확대를 위해 민간업자 분배율을 높이기로 한 것입니다. 2023년 12월에 있었던 광구 탐사운영권 입찰부터 이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SKK미가스의 드위 소에집토 대표는 정부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천 개 이상의 유정을 시추해야 한다며 연 200억 달러(약 26조 8천억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이나 계약 측면에서 투자자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며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우리 기업에게 프로젝트 기획과 타당성 조사 지원, 양질의 프로젝트 정보 제공, 금융조달 능력 제고 등 해외투자개발사업의 전단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